

매원고 2년 연속 우승 ‘국가대표 듀오의 힘’

남자중학부에선 수원원일중이 정상

〈김원호·강민혁〉

■ 전국불철총별배드민턴리그전

태릉선수촌 배드민턴국가대표 남자팀에 단 2명밖에 없는 고교생 국가대표 듀오 김원호, 강민혁이 매원고의 전국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매원고는 1일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불철총별배드민턴리그전 중·고등부 대회 최종일 남자고등부 결승전에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전대사대부고)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매원고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고, 김원호는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1단식 주자로 나선 매원고 강민혁은 전대사대부고 정민선을 상대로 2-0(21-14 21-18) 승리를 거두며 기선을 제압했다. 전대사대부고는 2단식에서 나성승이 매원고 김영민을 2-1(21-10 17-21 21-18)로 이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매원고는 3복식에서 김원호·박성우가 정동운·정민선을 2-0

(21-18 21-13) 으로 꺾고 다시 앞서나갔다. 매원고 강민혁은 1단식에 이어 4복식에 김영민과 다시 출전해 전대사대부고 나성승-정호연을 상대로 2-0(21-19 22-20)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열린 남자중학부에서는 매원고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수원원일중이 당진중에 3-2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섰다. 여자중학부는 구남중이 명인중에 3-1 승리를 거둬 우승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수원원일중 선수단이 1일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불철총별배드민턴리그전 중·고등부대회 남자중등부에서 우승한 뒤 토퍼피와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 | 대한배드민턴협회

경정 14기 박원규 돌풍 ‘심상철 데뷔 때 보는듯’

신인경주 3승…새내기 강자로 자리매김

경정 막내 14기들이 한 달간의 짧은 신인경주를 끝내고 3월부터 선배들과 실전 경주를 치르고 있다. 신인경주에서는 전반적으로 고른 기량을 보여며 선수들 간 전력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인 선수들 사이에 옥석이 가려지는 분위기다.

새내기 12명 가운데 현재 발군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졸업경주 우승자 박원규(24, B2등급)다. 신인경주에서 3승을 거두며 유망주다운 활약을 펼쳤다. 선배들과 맞대결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배들과의 실전 경주에 첫 투입된 8회차(3월 15~16일)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13회차(4월19~20일) 경주에서는 세 번의 출전 경기 모두 입상하며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신인 강자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실전에서 노련한 경주운영이 중요한 경정에서 신인이 데뷔하자마자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박원규의 활약은 7기 최강자 심상철, 12기 강자 유석현의 데뷔 때를 보는 듯하다. 평균 스타트 0.19초의 빠른 스타트는 박원규만의 확실한 주무기다. 앞으로 플라이 같은 약재만 있다면 연발쏠에는 누구도 무시 못 할 강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규 활약에 견줄 수는 없지만 이휘동, 조규태, 김은지, 김성찬 등도 양호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휘동은 10회차(3월29~30일)와 14회차(4월26~27일)에서 한 차례씩 우승을 차지했



박원규

고 조규태는 어떤 편성을 만나든 꾸준하게 3, 4 착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찬은 9회차(3월22~23일)에서 한 차례 우승했다. 신인 여자 3인방 가운데 가장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은지도 최근 열성 모터를 연습해서 배정받으며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기존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선화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특히 신인경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며 내심 박원규와 14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정환이 실전에서는 고전해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타트에서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 부족인지 경합상황 속에서 신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혁민, 문성현, 서종원, 이지는, 하서우 등은 스타트에서 약점을 보이며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해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정 전문가들은 “오 줌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신인들이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려워 당분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플라이 제제기간이 예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어 스타트 부담이 적고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좋은 편이어서 좋은 성능의 모터를 탑재하거나 코스가 유리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다. 고배당을 선호하는 팬들이라면 14기 신인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한다”고 충고한다.

김종건 기자

“어린이날엔 광명스피돔으로 오세요”

어린이날 광명 스피돔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명 스피돔에서 ‘스피돔 어린이날 페스티벌’을 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명 스피돔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할 각종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이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VR체험, 미술교실, 버블체험, 어린이 낚시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어린이 낚시대회는 자석을 이용한 모형물고기를 잡는 대회다. 1회당 10여 명이 참가해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어린이에게는 기념품도 준다. 공

연 프로그램으로는 동요 배우기, 캐릭터 인형극, 캐릭터 페이드, 애니메이션 상영 등이 시간대별로 진행된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연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에어바운스, 이색 포토존 등 상설 놀이시설에서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에어바운스에는 안전관리 진행요원이 배치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는 즉석 풍선 선물, 음료수, 캐릭터 인형 등이 제공된다.

김종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경륜 신인 4총사, 우수급서도 존재감

22기 김민준 김태한 황준하 김제영
강자들 상대로 기록지 않고 호성적
예상지 팀장 “우수급 지각변동 기대”

경륜의 특별승급 요건이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2회차 연속 1, 2위 입상에서 3회차 연속 1, 2위 입상으로 규정이 바뀌면서 특별승급에 성공하는 선수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별승급에 성공하더라도 대다수의 선수들은 기존 강자들을 틈에서 존재감 없는 플레어로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선발급에서 우수급으로 특별승급 한 22기 신인 4총사 김민준(25), 김태한(24), 황준하(26), 김제영(26)은 승급 이후에도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선배들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다.

특히 김민준이 돋보인다. 3월5일 부산 선발급 결승에서 선행 우승으로 특별승급 한 김민준은 3월24일 우수급 데뷔전에서도 종합득점이 가장 높았던 송현희의 선행을 과감히 2코너 쫓히기로 넘어섰고, 특선급 출신의 류근희, 손준호를 여유 있게 막아내며 갑작 우승에 성공했다. 다음 날에

도 빠른 시속을 자랑하며 선행 2착에 성공했다. 4월9일 부산 결승에서는 현재 특선급에 진출해 있는 김우현을 뒤에 붙이고 쫓히기 2착하며 동가생 최래선의 특별승급을 저지했다. 지난해 창원 토요경주에서 여동환을 넘지 못하며 실격당한 것이 육에 티지만 현재까지 9차례 우수급 출전에서 우승 3회, 2착 4회의 호성적을 기록 중이다.

2월26일 각각 광명과 창원에서 특별승급 한 김태한, 황준하도 입상권에 자주 얼굴을 내밀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3월17일 부산에서 주입 2착을 하며 우수급 데뷔전을 치른 김태한은 토요일, 일요일 경주에서는 목직한 선행력을 선보이며 각각 3, 2착을 했다. 2주 뒤 광명으로 넘어와서도 금요일 선행 3착, 토요일 마크 2착의 준수한 성적을 이어갔다. 우승에 목말라있던 김태한은 마침내 4월21일 창원 금요경주에서 특선급 출신의 우성식, 박민찬을 2, 3착으로 밀어내며 호쾌한 쫓히기 우승을 성공시켰다.

3월17일 광명에서 우수급 데뷔전을 치른 황준하는 금요일, 토요일 경주에서는 선행승부가 통하지 않으면서 5, 4착의 아쉬움을 남겼다. 하

지만 일요경주에서는 과감한 선행승부로 이규백의 쫓히기를 무력화시키며 쌍승 52.5배를 터뜨리며 우승했다. 4월22일 부산에서도 타총선행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특선급 출신의 고병수, 박대환을 각각 3, 4착으로 막아냈다. 김경환이 황준하 내선마크로 2착을 하며 쌍승 배당 564.8배 초대박이 나왔다.

4월14일 광명에서 우수급 데뷔전을 치른 김제영은 사흘내내 다양한 작전으로 금요일 선행 2착, 토요일 내선쫓히기 3착, 일요일 마크 2착을 기록했다. 광명에서 감을 잡은 김제영은 4월 29일 창원 토요경주에서는 4번을 배정 받은 악조건 속에서도 초추선행에서 그대로 시속을 올리는 강력한 선행력을 선보이며 자신을 내선마크 한 김지광과 함께 동시착 우승에 성공했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4월30일 특별승급한 윤현구, 이성민을 비롯해 22기 신인들 16명 모두 조만간 우수급 이상을 유지할 것이 유력하다. 일찌감치 특별승급 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도 선행, 쫓히기 시속이 상당히 빠르고 뒷심도 묵직하기 때문에 우수급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국민체육진흥공단 카누팀이 4월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남자 일반부 9개 팀 가운데 종합우승을 차지

했다. 김규명, 김태현 등의 고른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는 팀의 막내 김규명이 1인승 카누 종목에서 금메달 2개(500m, 1000m),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규명은 한밭고등학교 출신으로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춰 앞으로 기량을 키워나간다는

면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카약에서는 김태현이 1인승 200m, 500m 경기에서 2, 3위를 차지했으며, 4인승 200m 경기에서는 이재만~이우진~강승모~정성환이 2위, 500m 경기에서는 김태현~이우진~강승모~정성환이 2위를 차지했다.

김종건 기자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를 홈승률
특정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KIA	26	18	8	0	0.692	- 2패	0.278	4.52
2	NC	26	17	8	1	0.680	0.5	2승	0.274
3	LG	26	15	11	0	0.577	3.0	1승	0.281
4	S K	26	14	12	0	0.538	4.0	1승	0.266
5	넥 센	26	13	13	0	0.500	5.0	4승	0.296
6	롯데	26	13	13	0	0.500	5.0	1승	0.274
7	두 산	26	12	13	1	0.480	5.5	1패	0.268
8	k t	26	12	14	0	0.462	6.0	1패	0.230
9	한 화	26	10	16	0	0.385	8.0	3패	0.271
10	상 성	26	4	20	2	0.167	13.0	1패	0.259

MLB									
●경기결과									
LAA	5-2	텍사스	밀워키	4-3	애틀랜타				
보스톤	6-2	시카고C	신시내티	5-4	SL 루이스				
디트로이트	7-3	시카고W	미네소타	7-5	캔자스시티				
휴스턴	7-2	오슬랜드	LAD	5-3	필라델피아				
샌디에이고	5-2 (연장12회)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12-4	시애틀				
볼티모어	7-4 (연장11회)	뉴욕Y	워싱턴	23-5	뉴욕M				
애리조나	2-0 (연장13회)	콜로라도	마이애미	10-3	피츠버그				
토론토	3-1	탬파베이	토론토	3-1	탬파베이				

해외축구	(1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첼시 3 - 0 에버턴	맨체스터Utd. 1 - 1 스완지시티
미들즈브러 2 - 2 맨체스터시티	토트넘 2 - 0 아스널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알라베스 4 - 1 베티스	빌바오 3 - 0 셀타비고
에이바르 2 - 0 레가네스	오사수나 2 - 2 데포르티보
●세리야A 경기결과	
아마추어 경기결과	(1일)
축구	●제 72회 전국 종합 선수권대회(강원도 삼척)
●11권역=동의대(2승2무1패) 2-0 한국국제대(2승4패)	
●11권역 현재 순위=① 부경대(16점), ② 울산대(15점), ③ 인제대(9점)	
배구	●제 72회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태백 고원실내체육관 외 보조경기장)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제천상고 3-1 벌교상고, 남성고 3-1 송림고	
●여자 고등부 준결승전=선명여고 3-0 수원전산여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연원중 2-1 인성중, 문룡중 2-1 남성중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신단중 양중 2-0 수일여중, 경해여중 2-0 대구일중	
배드민턴	●2017 전국 불철 총별 배드민턴리그전(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매원고 3-1 전대사대부고	
●남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원일중A 3-2 당진중A	
●여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구남중A 3-1 명인중A	
핸드볼	●제 72회 전국 종합 선수권대회(강원도 삼척)
●남자 대학부 준결승전=경희대 35-26 조신대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전북제일고 32-26 청주광고, 남한고 31-24 정석향과고	
●여자 고등부 준결승전=화지정고 25-24 일신여고, 삼척여고 22-13 의정부여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글꽃중 27-15 효성중, 이리중 24-19 남한중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화지여중 24-16 일신여중, 만성중 21-20 인화여중	
탁구	●2017 ITTF 챌린지 슬로베니아오픈(슬로베니아)
●남자 복식 본선 결승전=이정우, 최원철(한국) 3-0 에크세키, 조디(헝가리)	

경기 예고

프로야구

●2017 KBO 리그

	KIA (핵티)	<고척>	넥센 (한현희)	NC (최금강)	<잠실>	LG (류재국)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오후6시30분, SKY스포츠		
2일	한화 (정민재)	<문학>	SK (윤희상)	두산 (유희관)	<대구>	삼성 (윤성환)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대구방송-R		
	롯데 (송승준)	<수원>	kt (정대현)			
	오후6시30분, SPOTV, 부산MBC-R, KNN-R					
3일	KIA	<고척>	넥센	NC	<잠실>	LG
	오후2시, KBSN스포츠			오후2시, SKY스포츠, SPOTV		
	한화	<문학>	SK	두산	<대구>	삼성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오후2시, SBS스포츠, 대구방송-R		
	롯데	<수원>	kt			
	오후2시, MBC TV, 부산MBC-R, KNN-R					

프로축구

<3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울산 <울산문수>	대구	수원 <수원W>	포항
오후3시, 대구MBC TV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2	
전북 <전주종합>	제주	서울 <서울W>	전남
오후3시, SPOTV+		오후3시, SPOTV2	
광주 <광주W>	강원	상주 <상주시민>	인천
오후3시, 광주 CMB		오후3시	

프로농구

(2일)

●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삼성

(6차전 · 잠실실내)

인삼공사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2

아마추어 경기예고

(2일)

화요일 경기

농구

●2017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A조=명지대-고려대(용인, 오후5시)

●남자부 B조=건국대-중앙대(충주, 오후5시)

●여자부=전주비전대-용인대(전주, 오후3시)

배구

●2017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태백 고원실내체육관 외 보조경기장, 오전10시)

테니스

●2017년도 김천 국제 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김천종합스포츠타운)

수요일 경기

(3일)

야구

●제 7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1회전=군산상고-부산고(오전10시), 대전고-서울고(오후12시30분), 포항제철고-선린인터넷고(오후3시), 부경고-성남고(오후6시)

축구

●2017 K리그 챌린지

●성남-서울이랜드(탄천종합), 경남-부산(창원축구센터), 안양-대전(안양종합), 아산-수원FC(아산이수신, 이상 오후3시), 부천-안산(부천종합, 오후7시)

오늘의 토토

(2일)

●농구토도 매치 44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 vs 원정

경기장소

1

05.02(화) 19:00

서울삼성 vs 안양KGC

잠실실내체육관